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

얼 굴

(2 2221)

명희의 얼굴에 — 아니 마음에 그런 그들이 찍히기 시작한 것은
아마 열두 살 나던 해 봄부터인가 봅니다.

딸 셋, 아들 둘, 오남매가 고스란히 잘 자라다가 명희 아랫동생인
여희가 급성 폐렴으로 허무하게 가 버렸을 때입니다. 여희는 그렇게
일찍 죽을 아이라서 그랬던지 진줏빛 살결을 가진 인형같이 아름다
운 소녀였습니다.

여희뿐만 아니고 명희네 남매는 미인이라고들 떠들었다는 어머니
를 가진 까닭인지 모두 곱고 기품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의 언니인 경희는 벌써부터 그 미모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오빠들도 수려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것은 또 무슨 조물주의 장난인지 명희 하나만이 투박
한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못생긴 얼굴을 가진 소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명희는 행복한 가정에서 충실하게 자라나, 자기 얼굴
생김생김 같은 것에 신경을 쓴다거나 아름다운 다른 동기에게 시기
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는 명랑하고 건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런 명희였으니 얼마나 어린 아우의 죽음을 슬퍼하였겠습니까?

여희의 장례가 끝난 후, 아주 병든 사람같이 자리에 누워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에게 명희는 정성껏 시중을 들곤 하였습니다. 웬일인지 가슴이 벅차

“어머니 저희들이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참았습니다.

여희가 죽은 후 옛새쫄 되던 날인가 봅니다. 어머니의 사촌 형님이 위로로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글쎄 없어도 좋은 못생긴 것은 저렇게 피동피동 살아 있고, 하필 그 귀여운 것이——아이 언니, 참 너무해요.”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간에는 아주머니를 대접한다고 사과를 방으로 나르던 명희는 어머니의 이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없어도 좋은 것…….”
이 한마디 말이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합니다.

—— 피동피동 살아 있는 없어도 좋은 것 ——

물론 어머니는 명희라고 지적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명희는 반사적으로 그 ‘없어도 좋은 못생긴 것’이 자기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명희는 어떻게 그 사과 접시를 처리하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없어도 좋은 못생긴 것’의 낙인이 명희의 마음과 얼굴에 찍혀 버려진 것이었으며, 이 낙인은 고스란히 열등감이 되어, 명희의 존재를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아주 조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그런 말을 하셨지만 어머니도 명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언젠가 명희가 성홍열(猩紅熱)을 앓았을 때는 며칠 밤을 새기까지 하셨습니다.

명희는 거울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자기 얼굴은 뭉툭한 코, 지나치게 시커먼 눈썹

아래 뺨하게 뚫린 눈, 남자같이 길게 찢어진, 남자같이 억세게 다물어진 입——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두뇌 역시 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잘합니다.

국민 학교를 우등으로 나와서 중학교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수한 성적도 그녀의 열등감을 덜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여학교에 들어가면 상급생들이 신입생들 가운데서 제각각 교제 동생을 물색합니다. 명희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체하면서도 역시 자기에게는 그런 신입이 없는 것이 섭섭한 것입니다. ‘없어도 좋은 못생긴 것’의 숙명이 다시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애 명희네 집 근사하더라. 피아노두 있구.”

정순이가 떠들어대었습니다. 하늘하늘하는 고운 머리를 이마에서 자른 정순이는 꿈꾸는 듯한 눈을 가진 미소녀입니다. 공부를 못하여 보결로 들어왔다고 친구들이 입을 삐죽이는 아이였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여왕같이 오만한 소녀였습니다. 명희는 정순이를 볼 적마다 어떤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에 가까운 동경을——

정순이의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의 시선이 명희에게로 모입니다. 클레파 양복이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니 가방도 고급제, 구두도 말쑥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거뒀 주시는 대로 차리고는 다녔지만 명희는 그런 것들이 구성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정순이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명희는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정순이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하게끔 되었습니다.

정순이가 명희네 집에 간 것은 명희에게 대수 숙제를 가르쳐 달라고 간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명희에 있어서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아름다운 정순이가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정순이는 종종 명희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으레 명희는

그녀의 부탁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몸이 괴롭고 하였지만, 그 희생과 소모가 그녀의 보람과 흡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아 걸핏하면 썰쭉하는 정순이 때문에 명희는 얼마만큼 마음을 쓰리게 하였는지 — 힘에 겨울 만한 일감을 갖다 맡기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오히려 기쁨이었으나, 공연히 썰쭉하여 본 체도 아니하는 것을 당할 때에는 교문에 들어서는데조차 고문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명희가 정순이보다 그렇게도 두뇌가 맑다는 것, 한 번도 학교 방침에나 선생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완전히 역설(逆說)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희에 있어 정순이는 없어서 안 되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만 정순이로서는 명희가 ‘없어도 좋은 못생긴 것’임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을 일요일이었습니다. 명희네 반 소녀들 몇은 교외로 소풍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면 선두가 되는 정순이가 명희를 끼게 한 것은 그날까지 가사 숙제인 테이블 센터를 갖다 주기로 된 까닭입니다.

명희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까무잡잡한 얼굴이 더욱 까칠해졌습니다만 그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데 마음이 밝았습니다.

“애썼다. 참 잘 됐어.”

정순이는 숯제 잘 펼쳐 보지도 않고 치사를 합니다.

며칠을 두고 정성스레 수놓고 꾸미고 한 그것을 그렇게도 간단히 처리해 버린 것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한 명희입니다.

‘그 앞사귀빛 말이야, 진 연듯빛보담 쭉색이 날 것 같아 내 실로 그렇게 했다.’

그녀는 이렇게 그 쭉색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가를 말하고 싶었으나 그냥 혀로 꺼 버립니다.

아주 쾌청한 날씨입니다. 소녀들은 각자가 마련한 과자랑 과일이랑 사진기랑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합해서 여섯 명 — 모두 열네 살 아니면 열다섯 나는 꽃다운 소녀들입니다.

말수도 적고 표정도 없었으나 명희는 이 행사에 제일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교외 소풍쯤이야 무엇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만 이 자신 없는 모범생에게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의 여왕격인 정순이의 마음을 그 테이블 센터로 흐뭇하게 해 놓은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정순이는 명희에게 다정하였습니다. 곱고 높은 음성으로 고개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선 명희의 손을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명희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짜릿한 것인가 하고 그저 황홀만 했던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 솜구름이 떠 갑니다. 들국화가 섞인 풀단풍 속에서 벌레가 울었습니다.

들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들은 종다리같이 재재거리며 서로의 점심밥을 펼쳐 놓고 즐거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명희는 자기가 마련해 온 음식이 제일 잘 풀리는 데 너무 흐뭇하여 식욕조차 잃었습니다.

메뚜기가 풀 속에서 뛰어나와 과자 위에 앉기도 하는 들 향연——
식사가 끝난 후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명희는 여희가 죽은 후부터 음성이 변하였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제복 단추가 들먹거릴 만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끝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나 홀로 앉아서——

약간 떨렸습시다만 제대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명희는 무슨 굉장한 무대어나 선 것처럼 긴장하여 노래를 이어 갔습니다.

그리워라——

그 때였습니다. 명희는 자기를 쏘아보는 정순이의 시선을 아프게 느꼈습니다. 순간 그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서의 우월을 허락지 않는 차디찬 정순이의 눈초리——

— 나 살던 곳 —

소리가 갈라져 막혀 버렸습니다. 음성이 들쭉날쭉하여 더 들을 수가 없게끔 됩니다.

명희의 이마에 진땀이 솟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던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들은 그 찌그러진 얼굴에서 엄숙한 무엇을 느꼈던 것이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잠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마음을 씻듯이 흘러내렸습니다.

“애, 노래는 그만두자.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놀까?”

침묵을 깨뜨리듯이 정순이가 제의합니다.

“그래 그래.”

모두들 웃으며 찬성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모두들 제멋대로 종이 조각에 여러 가지 말을 쓴 것들을 모아서 한 사람이 심문관이 되어 묻는 놀이입니다.

심문관이 종이 쪽지를 들고 차례로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음을 받은 사람이

“네 사랑합니다.”

라든지

“아니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놀이입니다만 그 종이 조각에 쓰는 문구에 따라 정말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꿀돼지’라고 쓴 종이를 펼쳐 들고

“사랑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대단히 사랑합니다.”

할 때에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싫어합니다.”

라는 대답에 대하여 물음이 ‘우리 어머니’라고 나올 때 심문관은

“아! 불효시구먼요.”

하고 상을 찌푸립니다.

이 ‘사랑합니다’를 여섯 소녀들이 하고 놀기로 하였습니다.

종이가 돌려져 여럿이 모두 고개를 기울여 서로 기기묘묘한 문구를 써넣었습니다.

정순이는 심문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힙니다.

“생선 뼈다귀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집 쓰레기통에 많으니 갖다 잡수십시오.”

정순이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꾸를 합니다.

“왓 하 하……웃흐흐…….”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랑하십니까?”

다음 사람이 심문관 앞에 섭니다.

“아니에요. 보기도 싫어요.”

“네 문화인이 아니시구먼요.”

“커피 한 잔을 싫어하시다니.”

또 웃음이 터집니다.

“사랑하시나요?”

“네 지독하게 일지도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네 그러십니까? 아마 귀에다 유성기를 장치하신 게죠.”

“신명희 씨의 갈라진 음성이 좋으시다니.”

정순이가 끊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 대신 서릿발 같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런 지독한 악의적인 장난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명희의 얼굴을 볼 용기를 잃었습니다만 그녀의 질린 추한 모습은 눈에 보듯이 환하였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정순이가 놀이를 계속합니다. 명희 차례였습니다. 명희는 뜻밖에도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명희 씨는 어쨌든 성녀(聖女)야.”

“종로 각쟁이를 다 사랑하시니.”

정순이가 빈정댁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가슴에 가 닿았습니다.

우연히 나온 말이지만 흥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명희의 태도에 마음이 동하였던 것입니다.

명희는 마음으로 끓는 물을 몇 번이고 잠자코 마셨습니다. 들놀이는 이미 그녀에게는 고행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녀들은 제각기 바람을 메고 풀단풍 속에 띄어진 들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고갯길에 이른 것은 이미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좁은 고갯길은 혼잡하였습니다. 교통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소녀들도 하는 수 없이 머물렀습니다.

앞에서 길이 트이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꽃송이 같은 소녀들에게 눈이 쏠렸습니다.

정순이는 그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얼굴을 번쩍 들고 새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넘어가는 해의 남은 광채가 그녀를 모란꽃같이 호화롭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꽃에 싸인 앞사귀같이 싱싱하게만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꽃같은 정순이 그늘에 선 명희의 얼굴에도 넘어가는 햇살은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우묵한 눈, 넓은 이맛전, 꼭 다물어진 입——정순이를 미(美)의 화신이라 하면 명희의 그 침침한 모습은 추(醜)의 형용일 것입니다.

소녀들 앞에 호화로운 승용차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늙은 신사가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그 늙름하고 칠칠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시름에 싸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 보기에 껍이나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태산 같은 근심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신사 역시 보기에는 호화로운 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수습할 수 없는 기업체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산(破産)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급한 일로 교외에 사는 사람을 찾았던 길이 교통 사고로 막히고 보니 신사는 초조하였습니다.

담배를 붙였다가는 끄고 운전사가 좀 전부터 보고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

거기 서 있는 소녀——

공작같이 아리따운 친구 그늘에 다소곳이 서 있는 소녀——명희였습니다. 아니 명희의 못생긴 얼굴에 깃든 엄숙한 희생과 참을성과 괴로움의 모습——그것이 신사의 의욕과 허영에 헤매이는 초조한 마음을 친 까닭입니다.

신사는 몸을 고쳐 세우고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훔쳤습니다. 자기 마음을 그토록 친 그 소녀의 정체를 좀더 뚜렷이 보려고나 하듯이

그러나 신사가 안경을 다시 썼을 때는 길이 풀렸는지 차와 사람의 고였던 흐름이 터지기 시작하여 소녀들은 사람의 물결 속에 감겨 들

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신사가 탄 차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계시나 받은 사람 같이 가슴이 거뜨해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파산도 무섭지 않다.

자기의 양심에만 거리끼지 아니한다면 ——

그는 지나는 차중에서 소녀의 얼굴을 또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작같이 아리따운 얼굴은 치켜져 있어 쉽사리 눈에 띄었습니다만, 그 얼굴 —— 그렇게도 감동적인 못생긴 얼굴은 숙여져 스며드는 황혼에 묻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1954. 11.)